

# 중국의 근대문화 형성과정에서 上海 租界의 영향

李哲源\*

## <目 次>

1. 서론 : 상해의 개항과 租界
2. 租界의 설치와 중국 전통문화의 충격
3.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중국 근대문화의 형성
4. 租界와 중국 근대문화의 특징
5. 결론

## 1. 서론 : 상해의 개항과 租界

원래 上海는 양자강 하구의 조그만 포구로부터 시작하여 明代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상품경제의 영향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개항이전 약 1백 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소규모 지방도시에서 동남연해의 상품경제가 발달한 항구도시로 성장해 있었다. 특히 중국 내의 남북지방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항구 도시이었기에 항운업은 상해 지역경제의 지주이었다. 강남지역의 면화, 土布, 生絲, 茶葉, 설탕과 북방지역의 콩, 보리, 豆餅, 기름, 棗, 토산품 등이 모두 이 항구를 통하여 교역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沙船(하천과 내륙수로를 왕래하던 대형 화물선)이 주종을 이룬 선박이었으며 이외에도 衛船, 估船, 鳥船의 명칭을 가진 선박들이 상해를 중심으로 국내교역과 외국(일본, 조선, 남양군도)과의 무역에서 상품수송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리고 이들 선박의 선주들은 대부분이 인근지역인 崇明島, 通州, 海門, 南匯, 宝山지방의 부유층을 구성하였다.<sup>1)</sup>

이편전쟁의 종결을 위해 체결된 1842년의 南京條約으로 清朝는 기존의 개항장

\* 忠州大學校 中國語科 教授

1) 沈渭濱, “上海城市民衆和上海小刀會起義” 「夏旦學報 : 社科版」, 上海, 1997. 4., pp.79-80.

이었던 廣州 이외에도 福州, 廈門, 寧波를 비롯하여 上海를 개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 1년 뒤에 체결된 五口通商附粘善后條約(약칭 五口通商條約)으로 구체적인 개항의 조건과 이를 실천할 내용이 설정되었다. 이 조약 제 7항의 내용은 ‘개항된 항구의 일정 지역에 부동산과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후 1845년 11월 영국과 체결한 上海土地章程으로부터 토지 임대가 시작되어 1847년 黃浦江과 현재의 河南中路에 이르는 약 830畝(1畝=200㎡)의 면적이 영국인 거주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이것이 바로 상해 조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1949년까지 100여년의 시간동안 중국의 영토주권, 토지관할권, 사법권, 행정관리권이 자국의 영토에서 상실된 지역으로 존재하였다.<sup>2)</sup> 여기에서는 상해라는 중국의 항구도시에 서양의 영토로서 조계가 설치됨으로 인하여 중국의 근대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수 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중국의 전통문화가 강제로 진입한 서양문화와의 접촉과 충돌의 과정에서 발전하며 수용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중화사상이라는 장벽이 서양의 근대문명을 만나서 새롭게 형성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 2. 租界의 설치와 중국 전통문화의 충격

조계가 설치되자 중국이 반응한 최초의 인식은 조계에 대한 호칭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조계를 夷場이라고 불렀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복문밖 원래 황무지에 서양인들이 들어와 집을 짓기 시작하여 근 십 여년 기와

2) 1842. 南京條約으로 五口開港(廣州, 福州, 廈門, 寧波, 上海) 1843년 五口通商附粘善后條約으로 구체적인 보충결과 제 7항에 이 지역 일정지구내의 租賃房屋土地居住通商로 규정하였으나 租界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上海가 조계로 설정된 것은 1845년 11월 영국에 의한 上海土地章程의 약정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조계내의 사건을 빌미로) - 1848년 3월 2820畝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1848년에는 미국도 조계를 설치, 1849년 프랑스조계 설정되었으며 1851년 일어난 太平天國起義와 1853년 3월 태평천국이 南京에 수도(天京)를 정하고 동년 9월 상해의 小刀會의 起義가 발생하자 당시 上海道(지방관)이던 吳建彰이 조계로 도망. 청정부의 관할정부기구가 없는 기간을 이용하여 조계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결국 1853년 조계의 무장중립선포 무장병력의 진주, 사법권을 선포하였으며, 조계내에서의 중국인 민형사 처벌법을 확립하였다. 1854년 英, 美, 佛 3국 영사가 토지장정을 수정하고 조계내에 工部局을 설립하면서 중국인에 대한 세금징수의 권한까지 획득하였다. 上海史資料叢刊, 上海公共租界史稿, 上海人民出版社, 1980. 7. p.44.

집이 비늘처럼 이어지면서 궁터가 없어지니 원주민들이 이를 이장이라고 불렀다.<sup>3)</sup> 오랑캐의 장소라는 의미로 서양문화와 서양인들에 대한 전통 중국문화의 반응이었다. 이는 오랜 동안 내재되어 있던 ‘중화민족이외에 모두는 오랑캐(內諸夏外夷狄)’라는 중화중심적 관념의 직접적 표현이었다. 동서남북의 이민족에 대한 夷狄 戎蠻의 표현을 조계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론 이보다 먼저 1832년 영국 상인들이 상해에 입항하여 통상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당시 상해의 지방관(上海 道台)이 보인 대응에도 夷國, 夷人이라는 표현이 있었다.<sup>4)</sup>

궁극적으로 서양 국가들을 오랑캐국가로 간주하고 서양인을 夷人으로 조계를 이장으로 부르게 된 이유도 중국의 전통문화적 인식인 중화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조계가 상해가 아닌 북경이나 다른 지역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역시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편전쟁 이전부터 밀려들기 시작한 서양문화에 대해 이처럼 전통적 사고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응은 계층과 지역을 불문하고 동일한 수준이었다.

1843년 상해에 거주하던 외국인의 숫자가 20여명이었으나 1865년이 되면 5천명을 넘게 되면서 외국인이 신기하거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조계 지역의 서양문화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으나 모래와 진흙 초가집들이 높은 건물과 평탄한 도로, 상점들이 줄을 서고 상품창고가 세워진 근대 도시로 탈바꿈한 것에 대한 경탄의 대상으로 변모하였다. 다음은 19세기 60년대 상해 조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黃繫材라는 지식인의 서술이다. “소동문 조교 다리 밖의 북쪽에서 서쪽지역에 이르기까지 사방 십여리가 상업지대인 조계인데 속칭 이장이다. 서양식 고층건물이 구름을 찌르고 8각형의 창문과 5색의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지붕, 기와와 옥을 된 둥근 건물이 들어섰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 서로 교차하는 것이 옛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그 도로에 성이나 도시의 이름을 붙이고 길의 폭이 넓어서 마차 서너대가 동시에 지나다닐 수가 있으며 돌을 갈아 평평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흙으로 진흙이 묻어나는 지저분함이 없다.”<sup>5)</sup> 1870년

3) 新北門外原系荒野,一望滄茫,自西人至此,遍造樓房,邇來十餘年,屋瓦鱗鱗,幾無擦地,土人名其地曰夷場,張德彝,航海述奇,長沙:湖南人民出版社,1981,p.146에서 재인용.

4) 洪祥,近代中國通商口岸與租界,天津人民出版社,1983,p.18.

즉 同治 11년 12월 2일자 申報의 기사에 租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인간세상에서는 보기 드물고 말로써 표현하기 힘들어서 상어의 궁전과 조개의 대궐이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풍속이 서로 다른 지역이 한곳에 합쳐진 것 같다. 북경에서 공부하고 다른 도시에서 연마했던 문장실력으로 조개의 풍속을 표현할 수 없고 산과 물을 그리던 솜씨로는 조개의 풍경을 그리기도 쉽지 않다. 그 제도의 기이하고 간교함이 눈을 현란하게 하고 유리의 붉은 색을 보아도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려우며, 물건을 수송하는 기술이 교묘하면서도 약탈을 일삼는다.”<sup>6)</sup>

조계가 설치된 후 10여년 지난 시점에서 중국인들의 눈에 비친 변화, 즉 서양문화에 대한 태도는 두려움과 탄식으로 표현된다. 당시 발행된 신문이나 잡지에 나타난 중국인들이 서양문명에 대한 인식은 이전의 서양을 무시하고 비하하던 상태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세기초에 이르면 夷場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반대로 이를 추종하는 경향으로 인식의 흐름이 변화되었다. 즉 洋이라는 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洋洋乎大哉’라는 의미가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서양은 더 이상 미개한 오랑캐가 아니며 ‘洋大人’主義(Yangdarenism)까지도 생성되었다.<sup>7)</sup>

夷場에서 洋場으로의 변화는 중국인들의 대외관과 대외정책에도 반영되었다. 예를 들어 청조와 영국이 당시 체결했던 天津條約의 규정에도 서양인을 오랑캐의 표현인 夷로 사용하지 말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바로 조계의 변영이라는 서양문화가 중국의 전통문화에 가한 충격의 공식적 표현이었다. 그리하여 상해인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천하의 유일한 문명국가’라는 전통적 중화사상에서 벗어나면서 단순히 문명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관념으로 대치됨을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申

5) 自小東門甲橋外, 擁北面西, 延袤十余里, 爲番商租地, 俗稱夷場, 洋樓聳峙, 高入雲霄, 八面窗櫺, 玻璃五色, 鐵瀾鈴瓦, 玉樓銅環, 其中街衚弄巷, 縱橫交錯, 久于其地者, 亦易迷所向, 取中華省會大鎮之名, 分設道里. 街路甚寬廣, 可容三四馬車并馳, 地上用碎石鋪平, 雖久雨无泥淖之患. 黃繫材 滬游雜記, 熊月之, “上海租界與上海社會思想變遷”, 上海研究論叢,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89.2輯, p.126.

6) 鮫宮貝闕, 蜃樓海市, 珠方而合居, 研京煉都之筆, 賦物爲難, 模山范水之圖, 寫形難易, 其制度之奇譎, 眼物之瑰耀, 恐難朱遇之而目眩, 般輪當之而巧奪也. 晉陵守眞子, “由上海寄某翁書” 申報, 1873年 12月 2日.

7) 최관장, “중국근대화과정과 정치경제적 갈등”, 중국연구, 한국외대중국연구소, 1994, p.54.

報 1878년 1월 28일자 기사에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오늘날 천하는 과거에 논하던 천하가 아니다. 옛날의 천하는 겨우 중국에 국한하여 이에 속하지 않은 곳을 다 네 곳의 오랑캐라고 하였지만 오늘의 천하는 사해안과 밖으로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sup>8)</sup>

외양적인 번성과 근대화된 도시로서 표현된 서양의 근대문명이 중국인들 특히 상해인들의 눈에 조계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넓고 정결한 도로와 높고 다양한 모습의 건물, 밝은 전기불과 전등, 다양한 상품과 조목조목 간결하게 운영되는 시장의 관리방법’ 등은 낡고 오래되었으며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된 자신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반성을 하게 만들었다. 조계의 도시행정체제도 당시의 서양문화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중국의 다른 도시와 비교가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지식인과 정치적 지도층에서도 조계를 방문하고 학습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1882년에는 康有爲가 조계를 방문하여 상해의 번성으로 서양인들의 통치에 근본이 있음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고 서양의 정치체제를 도입하려는 의지를 세울 수 있었음을 피력하였다.<sup>9)</sup> 그는 또한 조계로부터 받은 충격으로 대량의 서양서적을 탐독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의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였다. 결국 戊戌變法은 강유위의 문화적 충격이 바탕이 되어 전체 중국을 대상으로 펼쳐진 정치운동이었다.

조계가 서양문화의 상징이자 중국인들에게는 미래의 발전목표로까지 상정됨에 따라 자신들과의 격차를 실감하면서 시국을 걱정하는 심리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당시 紳士이었던 李平書의 표현은 중국인들 특히 상해사람들의 인식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내용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통상 이후 상해의 변화에 대한 기괴함과 비탄이다. 기괴함 가운데 기괴한 것은 어찌 같은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사업은 번창하는데 우리는 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인가이다. 비탄함의 비탄은 동일한 사람들인데도 외국인들은 우러러보고 우리는 비천하게 보이는가 하는 마음이다. 간단히 말해서 통상 이후 상해는 세상 사람들의 이

8) 今之天下非古之所謂天下也。古之天下不過中國一隅耳。凡不隸版圖者，皆謂之爲四夷。今天下則四海內外聲氣莫不通。申報，1878年1月28日。

9) 上海之繁盛，益知西人治之本也。康南海自編年譜，戊戌變法，4冊，北京：中華書局，1978，p.116.

목이 집중되는 이름으로 조계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다.”<sup>10)</sup> 이후 李平書는 조계의 도시행정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뒷날 지방자치운동에 매진하게 되었는데 그 시작도 역시 상해의 조계로부터 받은 문화적 충격의 결과이었다.

### 3.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중국 근대문화의 형성

조계의 설치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파는 중국의 전통적 생산양식인 농업경제에 팽배해 있던 重義輕利라는 전통문화의 관념에게 상품경제의 배금주의라는 충격을 주었다. 역사적으로 비교적 상품경제가 발달한 지방이었던 상하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重農抑商과 土農工商의 전통 관념은 뿌리 깊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조계의 설치로 인한 경제적 변화는 이런 전통문화의 잔재들을 생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선 조계로 인하여 중국의 대외무역의 중심지가 광주에서 상해로 이전되었다. 그리고 개항조약의 핵심 조건이었던 무역량이 증가하였고 외국의 상인의 숫자도 증가하였는데 1837년 중국에 주재하던 외국 상인의 숫자가 307명이었다. 이후 1850년 廣州에 362명으로 가장 많은 외국 상인이 있었으며 상해에는 141명이었으나 1859년 광주는 127명으로 감소한 반면 상해는 408명으로 늘어났다. 무역액도 1844년 廣州가 3340만달러이었고 上海는 48만달러이었는데 1853년 광주는 105만달러로 감소하고 상해는 172만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여 상공기업의 설립되었고 이에 필요한 물자와 생활용품의 수요가 확보되면서 투자를 증가해 나갔다. 1842년부터 1862년의 기간동안 외국의 자본이 중국에 새롭게 설립한 공업 기업은 모두 17개 이었는데 이 가운데 상해에 14개가 있었고 나머지가 廣州, 廈門, 寧波에 각각 하나씩 있었다. 그리고 외국의 상인이 개설한 洋行은 개항당시 11개이었으나 1854년 이미 120개로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怡和, 寶順, 旗昌, 沙遜등과 같이 阿片의 私販으로 부를 축적한 기존의 洋行과 새롭게 외국 상품의 수입을 허가

10) 吾一言通商以後之上海而爲之愧,爲之悲,愧則愧乎同一土地,他人踵事增華,而吾則因陋就簡也;悲則悲夫同一人民,他人俯視一切,而吾則局促轄下也. 要之通商以來,上海,其名震人耳目者租界也,非相形見丑耶, 李平書, “論上海”, 上海縣續志, 30卷, 上海古蹟出版社, 1956, p.357.

받은 中小洋行으로 公易, 泰和, 公平, 李百里 등이 있었다.<sup>11)</sup>

이들 양행들의 무역으로 航運業도 발전하여 상해와 중국 내의 지역간 항로가 확대되었다. 우선 상해와 홍콩간의 해운업 뿐 아니라 상해와 長江 내부의 도시인 漢口를 이어지는 內陸水路의 河運항로 그리고 天津으로 이어지는 北洋항로가 그것이었다. 새롭게 증대되거나 신설된 항로는 생산제품의 운송에 이용되는 것 이외에도 輪船公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운선공사는 선박의 수리 및 제조를 통한 영업과 이윤창출로 인하여 막대한 서양의 자본이 투자되었다. 1850년대 이미 영국과 미국의 자본가들은 包德, 貝立斯, 莫海青 등 10여개의 소형조선소를 설립하였으며 1860년대에 이르면 선박의 수리와 제조를 주종으로 하는 영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투자 자본이 커지게 되었고 규모가 큰 祥生(1862년), 耶松(1864년)등의 조선소가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飮食, 化學, 纈絲(비단), 印刷, 打包(포장), 公用業 등의 상공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확대되었다.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서양의 근대자본주의 금융자본(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이 상해 조계에 투입된 것은 당연한 순서이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麗如, 滙隆, 呵加刺, 麥加利은행과 프랑스의 法蘭西 등이 조계에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중국 금융을 주도하게 되는 滙豐銀行(현재의 홍콩상하이은행인 HSBC)이 1865년에 상해에 지점을 개설하였다.<sup>12)</sup>

외국 기업의 설립과 대외무역의 발전으로 상해는 신속하게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생산양식이 자리 잡게 되었으며 중국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귀속시켰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로의 전하는 초기의 洋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원래 廣州로만 제한되었던 서양의 상인이었던 洋行이 서양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판매지점(門市部)이외에서는 오직 買辦을 통하여 중국 상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었었다. 그러나 상해 조계가 설치되고 서양의 상업양식으로 전환되면서 雜貨와 洋布, 五金을 판매하던 중국의 상인들은 서양의 자본주의적 경영과 교역을 모방하게 되었다. 많은 점원과 수습직원을 고용하여 근대 자본주의양식의 상업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비단과 茶 등의 농업 부산품을 수매하던 중국 상인들도 양행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외에도 사진관, 경매업소(拍賣

11) 黃逸平, 近代中國經濟變遷, 上海人民出版社, 1992. 8, pp.69-82.

12) 孫毓棠, 甲午戰爭前外國資本在中國經營的近代工業, 附錄 1, 上海人民出版社, 1955, pp.234-235.

行)가 등장하였으며 목재상과 건설 자재판매업도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상인들의 출현은 중국 사회경제가 이미 근대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 전환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근대공업의 발전과 상업 과정에서 자생하면서 발전하였던 자본주의생산양식으로 근대 도시경제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 이자 근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sup>13)</sup>

외국자본의 공장과 항운업 등의 기업이 폭증하게 됨은 상해로 하여금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생산력을 접하게 하였다. 동시에 조계에 개설된 黑海書館에서는 중의 학자의 출판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양의 기술과 과학지식이 대량으로 전파되었다. 상해 사람들의 시각을 넓혀놓았을 뿐 아니라 서양의 부강한 기술에 대한 학습의 열기를 고취하였다. 결국 일부 고위 관료와 전통적 관념에 남아있던 상인들을 자극하여 자본주의적 활동으로 전환시켰다. 1865년 洋務運動을 추진했던 관료 가운데 하나인 李鴻章으로 하여금 上海에 중국 최초의 근대적 군수공장인 江南製造局을 설치하게 만들었다. 중국 근대화의 제일보를 의미하는 이 강남제조국의 설립에 이어 管督商辦의 輪船招商局, 上海機器局, 上海電報局을 설립하였다. 동시에 개인자본의 근대 공장들이 설립되었으며 1870년대에는 동력설비를 갖춘 근대 기계공장인 發昌鍛鍊作坊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建昌, 鄧泰記, 均昌, 合昌등의 기계공장과 高記목재공장, 公和永비단공장, 同文書局 등이 창설되었다. 이러한 공장 들은 최신설비를 갖춘 근대 기업이었다.<sup>14)</sup>

자본주의 경제의 영향력으로 상해 조계를 경험한 중국인들의 사회심리에도 전체적인 변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1870년대에 이르게 되면 이런 영향력은 경제영역을 넘어 교육, 문화계로도 전파되었다. 근대 대외통상의 중심 항구도시 상해의 조계는 流動性이 크고 개방된 사회와 다원적인 문화가 병존하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서양의 각종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여기에서 교환되고 혼합되면서 궁극적

13) 徐公肅, 丘聖章, 上海公共租界制度, 上海史資料叢刊, 上海公共租界史稿, 上海人民出版社, 1980, pp. 20-21.

14) 현재 중국의 國有企業 형태의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즉 관리가 감독하고 매관이나 상인이 경영을 담당하는 기업운영방식으로 양무운동의 대부분 기업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영방식이 전통적인 관리의 이념과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경영 이념이 충돌하면서 양무운동의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철원, 중국의 개혁운동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8, p.74.

으로 근대 시민의 독특한 사회적 성격을 형성하였다. 서양의 진입이후 중국에 자본주의사상과 생활방식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전통 중국의 문화는 상해 조계를 중심으로 심리상태의 명확한 변화가 일어났다.<sup>15)</sup>

1872년의 신문기사에는 상해의 개항이후 각 성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여들었으며 이윤을 추구하는 塾師(신식 학교)들도 상해에만 1천여 개가 넘는다고 하였다. 교육 내용도 과거 성현들이 주장했던 義를 강조하는 대신 개인적 이윤 추구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는 내용도 보인다.<sup>16)</sup>

이후 서양 학문을 교습한다는 학교의 광고기사도 등장하는데 강의내용인 개인적 이윤추구를 강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학비를 제시하는 경쟁상황으로 발전함을 볼 수 있다. 黃夢仙英語學院의 학생모집 광고는 등록금이 銀二元이었고 信和洋行이 운영하던 영어학원의 모집 공고도 우선 3개월치 학비로 銀十五元을 선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sup>17)</sup>

교육의 상품경제화로 나타난 또 다른 전통문화의 변동양상은 바로 八股文과 같은 고문이 자리를 감추고 서양의 학문이 주류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隋唐代 이래로 특히 宋明代부터 중국의 엘리트 순환과 충원의 경로는 오직 科擧制度뿐이었다. 秀才에서 擧人을 거쳐 進士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한 단계씩 상승하던 이 제도는 봉건관료체제의 근간이자 중국의 전통문화의 결정체이었다. 그러나 시기적, 제도적으로 이미 그 폐단이 심각했을 뿐 아니라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그 구심점을 상실하게 되었다. 당시 지식인들은 이 제도가 개인의 창조성을 말살하고, 순환과정이 너무 느리고 길며,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적기 때문에 과거 제도는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대신하여 상해의 조계가 지식과 재능을 갖춘 인사들에게 새로운 신분상승의 통로를 제시하였는데 바로 상업을 경영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시험을 포기하고 조계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서양의 학문과 외국어 학습에 집중하면서 외국어학당과 신식 학교가 발전하였다.

15) 王懷卓, "試析中國近代城市市民的矛盾心態", 華中師範大學學報: 哲社版, 武昌: 1993, pp.138-142.

16) '師說' 申報, 1872年 7月 4日.

17) 申報, 1876年, 6月 4日.

상해의 조계는 당시 중국에서 제일 개방적인 국제대도시로 성장하여 각종 정보가 여기에서 교환되었다. 특이한 점은 상해를 구성하는 중국인들도 중국의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중국과 서양이 서로 혼합된 사회 환경 중에 그 인식과 사고의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전환되었다. 우선 당시 중국인들이 획득할 수 있었던 격증하는 정보의 양으로 표현되었다. 당시의 신문의 수량의 변화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데 19세기 초에서 19세기 말까지 외국인이 중국에서 창립한 중국어와 외국어 신문만도 200여종이 넘었다. 청일전쟁이전 상해의 시민들은 주로 「申報」, 「字林西報」등을 통하여 외부세계의 소식을 받아들였다. 이후 「時務報」, 「蘇報」, 「民呼日報」 등 십 여종의 대형신문들이 쉬지 않고 소식을 전하였으며 이외에 크고 작은 각종의 소형신문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정보의 양의 점차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정보의 지역적 공간의 확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한 가지 명확한 현상은 해외정보가 신문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끊임없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사이었던 영국의 로이터(Reuters)통신사가 1871년 지국을 상해에 설치하면서 중국인들은 더욱 빨리 세계 각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중국인들은 세계 각지의 정보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sup>18)</sup>

넓어진 시야에 의해 더욱 새로워진 인식의 세계에는 변혁을 추구하는 심리로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근대적 의미의 시민의식으로도 진전되었다. 과거 무조건적으로 대중의 태도에 순종하던 전통적 사회심리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직접적인 환경과 사물에만 국한되어 관심을 보이던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 인식의 틀이 변화를 갖게 된 것이다. 새로운 생활경험과 행위방식에 접하게 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선조들은 우물안 개구리였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다. 오늘에 이르러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 서양에 대해 알게 되고 중국이 더욱 즐거워지니 과거 서양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상하게 여긴 것과는 거리가 멀다.”<sup>19)</sup>는 신문 기사가 이를 대변하였다. 이런 표현은 당

18) 盧漢超, “西方物質文明在近代上海” 唐振常 外編, 上海史研究 二編, 上海: 學林出版社, 1988, pp.38-40.

19) 先時人皆囿于井蛙之見, 苟非耳所習聞, 目所習見, 則嘩然, 群以為愧. 今則眼界既開, 見識漸廣, 西人之所為,

시 중국인들이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계를 포함한 국제도시로서 상해의 중국인들이 경험하게 된 변화가 전체 중국을 대변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공간의 확대로 중국과 서양의 비교를 중시하는 심리가 구축되면서 점차 사물과 사실을 관찰하는 사유방식이 중국인들에게 형성되었다. 당시 중국인들은 현실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전통적 가치관에서 근대화된 인격체로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바로 장기적인 봉건체제의 폐쇄성에서 탈출함을 의미하였으며 사상의 해방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sup>20)</sup>

#### 4. 租界와 중국 근대문화의 특징

상해의 근대화와 서양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전으로 상공업이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租界라는 특수 지역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양의 상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의 상인들과 새롭게 이 분야 진출한 중국인들도 조계라는 특수한 조건을 이용하여 청조정부의 전통적 정책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의 정치적 집권세력이었던 滿洲族 皇帝를 비롯하여 漢族 官僚階層도 전통유교의 名教에 입각한 中農主義思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양의 기계와 기술의 사용에 대한 반대는 물론이고 평민이 개인적으로 서양의 기계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오직 管督 商辦 기업에서만 서양의 문명과 이기의 사용이 허용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었다. 봉건 정치적 속박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었던 租界에서는 서양자본의 투자와 협조 하에 청조 정부의 법령과는 관계없이 모든 분양의 산업에서 독립된 경영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太平天國과 小刀會事件의 시기에도 오

中國多樂爲之，與從前之少見多愧者大相懸殊，'論創會' 申報，1881年 3月 9日。

20) 熊月之，'上海租界的双重作用'，唐振常，위의 책，pp.53-54.

히려 상해의 산업발전이 가속화되었다. 이는 당시 租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안전이 이들 반란세력들로부터도 보장되었으므로 자본의 투자가 증가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上海 주변 각 省의 地主 및 官僚, 전국의 富商들에게 국내의 정치적 혼란으로부터 안전한 上海로의 자본이전은 당연한 결과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힘입어 상해는 錢庄業 또한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근대적 공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수 있었다. 더구나 租界는 도시건설, 특히 도시의 기간산업 분야에도 상당한 투자와 더불어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추진되었다. 도로, 항만, 교량건설 등의 분야가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고 특히 大馬路(현재의 南京東路)를 포장건설하면서 중국의 산업중심으로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上海는 중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외형적으로 근대 중국의 새로운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21)</sup>

원래 조계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외국인들만을 위한 거주지이었다. 그러다 1853년 중국인과의 공동거주가 허락된 이후 중국인들이 대거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상해는 앞서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그야말로 五方雜處에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移民사회였다. 인근의 江蘇, 浙江은 물론이고 전국 각 성의 富豪, 商人, 貧民 등 그 근원과 연고가 다양한 구성인자들로 출신성분도 복잡하였다. 1895년 조사된 조계 내의 상해인들의 原籍地는 陝西, 甘肅, 云南, 貴州와 같은 변경지역을 포함하여 18개 省 출신들이 모두 있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모여든 이들은 언어와 습관, 풍속,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공동 거주하는 집단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종사하는 직업이나 업종별로 촌락을 이룬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四川北路, 武昌路, 崇明路에는 廣東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으며 小東門의 洋行街에는 福建인들의 상가가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久上海의 南市 주변으로는 浙江省의 寧波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촌이 있었다.<sup>22)</sup>

상해는 오직 사람뿐이며 당연하게도 최선의 노력과 오직 진보만이 있을 수 있었다. 여기에 있던 것은 각양각색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구역,

21) 梅朋, 傅立德, 上海租界史, 上海譯文出版社, 1983, pp.375-376.

22) 胡祥軒, 上海小誌雜記, 10卷, 上海史資料選集, 上海文獻出版社, 1960, pp.167-170.

상점, 총회, 여관, 커피숍이 있었다. 그 안에 고유의 풍습을 전시해 놓은 백화점이 바로 상해라는 지적은 그래서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여기에다 상해의 이민사회가 출신지역의 구분에 따라 조직된 會館과 公所가 34개나 있었다.<sup>23)</sup>

문화전파의 특성으로 한 문화가 이질문화에 포위되면 자신들의 전통의식을 유지하려는 능력이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문화의 창조자이자 문화의 종합적 표현형태이며 수단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동은 바로 문화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집단이 출생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자연히 원래의 지역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된 지역에서 본래의 문화에 대한 집착을 더욱 강하게 발휘하는 인간의 문화적 특성도 발휘된다. 자신의 고향에서는 별 의미 없이 지니고 있던 문화도 본거지를 떠나게 되면 더욱 애착을 느끼게 된다. 고향의 방언, 풍속, 습관에 대한 친밀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현재의 예를 들어 보면 중국대륙에서는 이미 소멸되었지만 해외 화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원형대로 유지되고 있는 중국의 전통풍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현상은 향토관념의 표현형태로 문화전파에서 형성되는 '문화의 섬'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상해에 형성된 근대 중국 문화의 특징은 바로 각 지역의 이주자들이 완강하게 유지하면서 표현한 중국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다. 광둥, 복건, 四川, 安徽의 음식들이 시장에서 판매되며, 安徽의 調劇, 광둥의 越劇, 紹興의 戲劇 등 각 지역의 공연물이 관객들을 만족시켰다. 그리고 광둥어, 寧波語, 蘇州語, 江蘇北部地方方言 등 남북의 방언이 여기에서 혼합되어 새롭게 상해의 독자적인 언어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런 특징들은 상해로 이주한 각 지역 이민들의 내부적 응집력을 증강시키면서 또한 상해와 전국 각 지역간의 문화적 연관성으로도 발전하였다. 이런 문화적 유대감이 다음 범주로 확대되는 것이 바로 민족의식으로 승화되었다는 특징도 지닌다. 상해의 조계는 중국인과 서양인이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복잡한 형상을 보였다. 그러나 서양인들에게는 潮州사람이나 寧波사람이나 모두 중국인이었다. 조계는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산물이었기에 서양인

23) '上海-冒險家の樂園, 上海研究資料續集, 上海古籍出版社, 1956, p.98.

의 관점에서 중국인을 무시하는 사건은 당연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상해인들의 근대적 민족의식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지역보다 조기에 형성되었으며 그 표현형태도 매우 명확하였다. 조계에서 서양인과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인들은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연합하여 대처하는 일체감을 보였다.<sup>24)</sup> 결과적으로 상해의 이민사회에 형성된 문화적 향토관념은 민족의식으로 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 서양세력에 대항하여 상해인들은 더 이상 지역색을 지닌 것이 아닌 上海人 더 나아가 중국인을 대표하게 되었다.

## 5. 결론

조계를 통하여 상해는 서양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유입에서 모두 전체 중국대륙보다 앞선 지역이었기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부적합한 전통문화의 개혁을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양을 배우는 동시에 서양에 대하여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하는 특성을 상해인들은 지니게 되었다.

24) 구체적으로는 1874년과 1898년 발생한 四明公所事件으로 영파인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나 전체 상해인들이 공동으로 저항하였다. 러시아의 東北三省 침략에 대응하여 실력행사를 보인 1905년의 사건도 상해에서 가장 먼저 발발하였다. 이후 미국상품불매운동을 비롯하여 五州運動, 抗日救亡運動에 이르기까지 상해는 전국에서 가장 민족의식이 강력한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 〈參考文獻〉

- 梅朋, 傳立德, 上海租界史, 上海譯文出版社, 1983.
- 盧漢超, “西方物質文明在近代上海” 唐振常 外編, 上海史研究 二編, 上海: 學林出版社, 1988.
- 上海-冒險家的樂園, 上海研究資料續集, 上海古籍出版社, 1956.
- 上海之繁盛, 益知西人治之本也, 康南海自編年譜, 戊戌變法, 4冊, 北京: 中華書局, 1978.
- 徐公肅, 丘瑾璋, 上海公共租界制度, 上海史資料叢刊, 上海公共租界史稿, 上海人民出版社, 1980.
- 孫毓棠, 甲午戰爭前外國資本在中國經營的近代工業, 附錄 1, 上海人民出版社, 1955.
- 沈渭濱, “上海城市民衆和上海小刀會起義” 「復旦學報: 社科版」, 上海, 1997. 4.
- 王懷卓, “試析中國近代城市市民的矛盾心態”, 華中師範大學學報: 哲社版, 武昌, 1993.
- 李平書, “論上海”, 上海縣續志, 30卷, 上海古蹟出版社, 1956.
- 李哲源, 中國의 改革運動에 關한 比較研究, 韓國外大 博士學位 請求論文, 1998.
- 張德彝, 航海述奇,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1.
- 崔寬藏, “中國近代化過程과 政治經濟的 葛藤”, 中國研究(韓國外大中國研究所), 1994.
- 黃繫材 滬游勝記, 熊月之, “上海租界與上海社會思想變遷”, 上海研究論叢,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89. 2輯.
- 黃逸平, 近代中國經濟變遷, 上海人民出版社, 1992. 8.
- 胡祥軒, 上海小誌雜記, 10卷, 上海史資料選集, 上海文獻出版社, 1960.
- 洪祥, 近代中國通商口岸與租界, 天津人民出版社, 1983.

### 〈中文提要〉

西洋帝國主義在中國設立的第一个租界,是上海英國租界(1845年設立,1869年改爲公共租界).接着,法,美,德,俄,日等資本主義列強,以利益均霑爲由,也先后在中國一些通商口岸强行設置租界.租界從形式上看,是外國商民居住,經商的地方;實際上,資本主義帝國主義列強在租界內,實行了完全不受中國行政系統管轄和法律制度約束的統治制度,即植民主義統治制度.清朝時期,在各通商口岸的30多个外國租界中,以上海租界爲最大,帝國主義統治時間最長.1844年,英美兩國就在上海設立了11家洋行,其中著名的有怡和洋行,大英輪船公司,沙遜洋行,仁記洋行,旗昌洋行等.10年之后外商在上海開設的洋行激增之120多家.同時外國商船和貨物數量亦与年俱

增。廣州的外貿重心地位已被上海所取代。1853年上海進出口總額超過了廣州。隨着上海經濟的發展爲中國海外貿易中心和最大的商埠地。租界的發展,是由黃浦江邊逐漸向西擴展,首先經營的地區是外灘。近代中國文明的形性上,上海租界設立和作用不少,其西洋文明向中國影向也極大。從1953年租界內認定華洋同住了以後,西洋先進科學技術和資本主義生產樣式推動了誇大妄想的中華思想下的中國近代文明改造了。所以近代中國文明史上看上海租界的設立和發展僅有接密的關係。

**關鍵詞：**南京條約, 上海, 租界, 近代化, 西洋文明, 中華思想, 經濟體制, 資本主義生產樣式

이 논문은 2009년 10월 29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